

퇴임 앞둔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후임 관장은 지역과 소통하는 전문가 와야”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이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년 반 광주시립미술관을 이끌어 온 황영성 관장이 오는 28일자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동안의 성과와 무관하게 최근 광주비엔날레와 공동 주관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파행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이 심했던 그다. 황 관장은 퇴임을 앞두고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 관장은 전문성이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가에서 미술 행정을 하는 관

장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황 관장은 “행정가로서의 삶보다 작가로서의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았기에 새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작업실로 돌아가려고 했다”며 “휴일 날 작업실에 앉아 작업을 해도 미술관 문제들이 떠올라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제는 편안하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가 후임 관장이 되면 어떨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염려를 나타냈다.

전시하고 싶어할 정도로 국제적인 입지를 이미 확보했다. 이제는 광주비엔날레와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술관의 접근성 문제를 풀지 못했다. 어떤 시민들이든 시립미술관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홍성남 작가의 작품 ‘세월호월’에 대해서는 미술관장과 작가의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장품 구입·전시 등 지역 미술인 배려...지역사회와 조율 노력도 행정가보다 작가로서의 삶 더 만족...작업실로 맘 편히 돌아갈 것

관 사이에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술관 소장 작품을 구입하는 것부터, 지역 미술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미술관장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의미다. “행정과 실제의 조화가 가장 힘들었다. 안과 밖의 의견 충돌도 많았고, 전시 기획하는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었다. 최대한 지역 미술인들을 배려하려고 애썼지만 지역사회와 각계 미술인들 사이에는 괴리감이 존재했던 것 같다. 그 괴리감을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노력했다.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한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황 관장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곳저곳에서 자타천천으로 신임 관장 후보에 대한 이

“전문가가 지역에 있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외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의 조화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과 갈등이 생길까봐 염려된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으니 분명히 좋은 분이 관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누가 오든 미술관을 지역이 아닌 국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재임기간 평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국제적인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에 걸맞은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외국 작가들이

대답해야 한다. 미술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할말이 있을 것이다. 이우유 대표이사의 경영인과 미술비평가의 입장이 다르다는 말에 공감한다. 어떻게든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황 관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미술관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미술관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취임한 황 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연임했으며 내년 3월 16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화폭에 심은 생명의 ‘씨앗’

지노갤러리 윤세영전...내달 12일까지

하나의 생명이 자라나기까지는 무엇인가의 도움이 절실히 다. 그리고 그 생명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순간 순간이 하나의 역사가 된다.

화폭에 작은 생명의 씨앗들을 키워내고 있는 서양화가 윤세영씨의 여섯번째 개인전이 9월12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지노갤러리에서 ‘모종’을 주제로 열린다.

작은 모종을 모티브로 한 그의 작품에서는 생명의 꿈틀거림이 느껴진다. 생명의 꿈틀거림은 곧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소외, 우울함 등으로 연결된다. 화폭 위에 채색된 푸른 색조는 그런 메시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해준다. 우울한 감정들은 곧 청색의 힘찬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윤씨의 작품에서는 노란색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작품 속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이런 작품의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작품에 나타난 생명의 성장과 연결된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윤씨는 의재 허백련 레지던시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84-050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그해 봄’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다다’ 오늘 오픈파티...‘多~’ 초대합니다

수산시장 주차빌딩 내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젝트팀은 22일 오후 대인수산시장 주차빌딩 내에 조성한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다다’를 오픈한다.

대인수산시장주차빌딩은 대인시장 동문다리입구에 인접한 6층 규모 건물로, 1994년에 건립되었으나 시장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주차기능은 일부만 수행하고 대부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지난 5월 대인예술시장 작가모임체인 ‘다다협동조합’이 이 빌딩 5층 329.72㎡(약 100평) 공간을 임대, 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이 약 2달에 걸쳐 개입스튜디오

12실, 세탁실, 공동주방 등이 포함된 창작공간으로 조성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작가는 공모를 통해 강영숙·박혜란·임현재·전현숙·정유승·박현이·려은·이승일·홍희란·이승하·이동석·이현아·문유미씨 등 13명이 선정됐다.

레지던스 기간 중에는 아트페어(10월)와 결과보고전시회(12월)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2일 오픈 행사에서는 작가 및 작품소개, 창작스튜디오 공간 소개 등이 진행되고, 대인예술시장 메이커스토 활동 중인 ‘크리에이티브 배정’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kki@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랑’ 3호

남농 허건이 전하는 호남 남종화 여정

문화랑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발행하는 소식지 ‘문화랑’ 3호가 나왔다. 한국화가 허건의 작품 ‘유목동 물 인간 문명’을 표지로 한 이번 호에는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에서부터 이어온 진도 윤림산방 5대 화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가 허건이 2011년에 쓴 ‘소치 허련 : 호남의 남종화의 여정’ 원고의 화자를 조부인 남농 허건의 구어체로 바꿔 소개해 재미를 더했다. /김경민기자kki@

서봉 전국 청소년·실버 국악대제전 개최

24일 전통문화관

제7회 서봉 전국 청소년 실버 국악대제전이 오는 24일 오후 8시부터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사)동초제서봉관소리진흥회(이사장 방성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사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판소리, 가요곡 병창, 가악(가아름, 거문고, 해금, 피리, 아쟁 산조 등), 학생부 단체 경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 밖에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판소



리, 사물놀이, 무용 등 국악 전 종목에 걸쳐 경연을 펼친다. 일반부 종합대상에게는 국회의장상, 학생부 종합대상에게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다문가정 국악 체험 한마당 행사도 열린다. 참가 마감은 23일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62-652-429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서점 에스24

어린이 독후감 응모

인터넷서점 에스24가 제11회 어린이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독후감 응모를 받는다. 만 6세 이상 유치부와 초등학교 전 학

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독후감 대회로, 응모 방법은 도서 제한 없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작성한 독후감을 블로그(blog.yes24.com/kidsreview)에 등록하면 된다.

분량은 유치부 50자, 저학년 300자, 고학년 600자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수상자 선정 기준은 개인상의 경우

책에 대한 이해도, 독후감에 담긴 독창성에 초점을 둔다. 단체상은 단체별로 응모수, 개인상 수상 가산점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수상자는 10월 20일 에스24 홈페이지와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1일에 진행된다. /박성천기자skypark@

양림동 골목에 1930년대 ‘영란燈’ 설치

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 ‘광주1930’팀 11월까지 전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 일원인 양촌길에 1930년대 광주의 밤거리를 수놓았던 은방울꽃 모양의 가로등이 설치된다.

2014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참여 단체인 광주1930은 오는 25일 문화공간 ‘광주1930’에서 ‘영란燈(燈) 제작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비엔날레에서 공모한 ‘나도 비엔날레 작가-술 데 있는 궁리(窮理)’ 사업에 선정된 ‘광주1930 골목 밝히기 프로젝트-영란燈을 켜라!’ 일환이다.

영란燈은 은방울꽃(영란) 모양의 전기 가로등으로 193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전기 가로등이 대도시의 주요거리에 설

치됐다가 1940년대에 일제의 금속회수령과 함께 철거됐다.

‘광주1930 골목 밝히기 프로젝트-영란燈을 켜라!’는 광주의 옛 모습을 지켜온 대표적 근대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영란燈을 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해가 지면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어두워지는 양림동 골목길에 빛을 불어 넣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골목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워크숍에서는 집집마다 대문에 걸어 놓을 영란燈을 직접 제작한다. 종이공예가 오석심(광주광역시 공예명장 1호)씨와 마을 주민 30여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의 손길이 닿아 완성된 영란燈은 2014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양림동 양촌길에 전시 될 예정이다. ‘광주1930’은 이외에도 양림동 주민들의 인터뷰 등 양림동 정보를 전하는 광주1930 신문을 발행해 양림동에 대한 주민들의 추억 및 일상을 전할 예정이다. 문의 070-4239-504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문화공간 ‘광주1930’ 전경.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and insulation services, featuring images of workers and text describing their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